



박철우 | 나사렛대학교

## 1. 서론

소예언서의 통일성과 구성의 특징과 신학적 의도에 관한 논의는 소예언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근래의 가장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낸 존스(Barry Alan Jones)는 그의 논문집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sup>1)</sup>에서 소예언서의 형성과 통일성과 관련된 이론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전개하였다. 우선 학자들을 두 범주로 나누어 이해한다. 이 통일

---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나사렛대학교의 연구비 지원과제임.

1) Barry Alan Jones,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SBL Dissertation Series 149,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1995); 참고, "The Book of the Twelve as a Witness to Ancient Biblical Interpretation,"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SBL Symposium series no. 15, Atlanta: SBL, 2000), 65-74.

성을 개정적 편집의 결과임을 주장하는 학자군과 수집적 편집의 결과라고 보는 학자군으로 나눈다. 전자의 경우 편집자들이 기존의 소예언서의 각 책들을 있는 말미와 서두 부분에 다양한 본문들의 삽입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한 고대 편집자의 광범위한 편집작업의 결과(“the result of extensive redactional composition”)라고 보며, 그 대표적 학자로 부데(K. Budde), 볼페(E. Wolfe), 바이마르(P. Weimar) 등을 예로 들어 소개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기존의 소예언서들을 수집하여 한권의 책으로 엮은 편집자에 의해 편찬된 책으로 본다(“the result of editorial compilation: the work of editors who collected the books of the Minor Prophets into a single volume”).<sup>2)</sup> 이 범주에 드는 학자들로는 에발트(H. Ewald)를 시점으로 최근의 슈나이더(D. Schneider)와 정경적 관점에서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클레멘츠(R. Clements)와 리(A. Y. Lee)의 전개를 언급하고, 이어서 폴 하우스(P. House)의 견해를 소개한다. 폴 하우스의 경우, 존스는 그가 매우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소예언서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그 통일성을 증명하려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예언서 수집물 안에 있는 개별적 책들의 개정적 편집 면모와 소예언서들의 내용적 복잡성을 인정한 갓월드(N. Gottwald)와 막스(H. Marks)의 전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전개들을 통합적으로 전개한 최근의 학자로서 노갈스키(J. Nogalski)를 소개한다.

노갈스키는 예언서의 서두와 말미에 나오는 주제어들(catchwords)을 바탕으로 소예언서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소예언서의 편집자가 각각의 예언서 서두와 말미에 이러한 표현들을 첨가함으로써 이들을 통일성있는 하나의 구조체(corpus)로 만들었다고 본다. 존스는 각 예언서들의 서두와 말미에 나오는 이 특수 표현들을 중심으로 소예언서의 편집과정을

2) Barry Alan Jone, *윗글*(1995), 13.

설명하는 노갈스키의 논지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sup>3)</sup> 그러나 존스는 노갈스키가 가끔 각 책들 사이의 연결부에 있는 단어들 자체가 편집의 결과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제안하는 단어들 너무 보편적인 단어들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노갈스키의 전개에 약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존스는 노갈스키의 논지에 있어 더 큰 문제점은 그가 4QXII<sup>a</sup>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라고 말한다.

존스는 노갈스키의 전개를 상당부분 수용하지만 사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존스는 MT의 소예언서와 4QXII<sup>a</sup>와 70인역의 소예언서의 배열적 특징을 바탕으로 소예언서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나간다.<sup>4)</sup> 그는 이것이 소예언서의 기원과 통일성의 이해에 관한 가장 객관적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며 그 자신의 고유한 논지를 전개한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특히, 요나서가 4QXII<sup>a</sup> 소예언서의 12번째 나오며 결론부의 기능을 했으며, 70인역 소예언서의 전반부 6권의 6번째 나오므로써 전반부의 결론부 기능을 했다는 존스의 이해를 그 출발점으로 한다.<sup>5)</sup> 그러나 그는 요나서가 오바다서 뒤에 나오는 것은 매우 우연적인 것이라고 본다(“almost accidentally”).<sup>6)</sup> 그러나 필자는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결론적 기능이 MT의 소예언서에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특히 MT 소예언서는 삼단양식적 구조(triadic structure)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 안에서 요나서는 첫 번째 블록의 결론부 역할을 하며 두 번째 블록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2장에서, MT 소예언서 형성 과정에서 나

3) 윗글, 36-37; James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to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7,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idem, *Redactional Processe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8,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4) Barry Alan Jones, 윗글(1995), 6-7; cf. Eugene Ulrich and Others, *Qumran Cave 4,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XV, Oxford: Clarendon, 1997), 221-232; F. M. Cross, Jr.,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and Modern Biblical Studi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76), 121.

5) Barry Alan Jones, 윗글(1995), 6, 229

6) 윗글, 233

타난 구조적특징에 관한 학자들의 전개를 검토함으로써 소예언서 형성과 정자체에서 이미 삼단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고, MT 소예언서의 구조적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 삼단양식적 구조체인 MT 소예언서 안에서 특히 이 구조체의 첫 번째 블록 안에서 요나서가 갖는 문학적 신학적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sup>7)</sup>

## 2. 소예언서 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들과 소예언서의 삼단양식적 특징

슈나이더(Dale A. Schneider)는 1979년 그의 논문 “The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에서 12소예언서는 그 형성 초기에 각각 3권의 책들로 구성된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있던 구조체였다고 주장한다.<sup>8)</sup> 슈나이더는 소예언서가 3단계의 편집단계를 거쳤다고 가정하며 우선 호세아-아모스-미가서가 히스기야 시대에 12소예언서의 핵으로 먼저 구성되었다고 본다.<sup>9)</sup> 나훔-하박국-스바냐서 블록이 요시야 종교개혁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포로기에 앞의 블록에 연합되었으며, 요엘-오바다-요나서가 포로기 후반에 앞의 6권에 첨가되어 9권의 블록을 형성하게 되었고, 학개-스가랴-말라기가 주전 5세기말 이전에 더 첨가되어 12권의 소예언서가 이루어졌다고 본다.<sup>10)</sup> 존스는 그의 주제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 다소

7) 두 번째 블록과 세 번째 블록의 특징과 소예언서 전체에서의 첫 번째 블록과의 상관관계와 문학적 신학적 기능에 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른 기회로 미룬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8) Dale A. Schneider, “The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9)

9) 프리드만은 이 책들의 표제어를 바탕으로 히스기야 시대의 블록을 증명한다: D. N. Freedman, “Headings in the Books of the Eighth Century prophets,” *AUSS* 25 (1987), 9-26; Barry Alan Jones, *윗글*, 24, foot-note 48).

10) Bryan G. Curtis도 유사한 전개를 한다(히스기야 시대의 편집물[호세아-아모스-미가]; 요시아 시대의 편집물[나훔-하박국-스바냐]). 여기에 오바다가 첨가되었다고 보며, 학개-스가랴-말라기는 독립된 또 하나의 블록으로서 앞의 블록에 연합되었고, 요엘과 요나서는 더 후기의 것으로 추정한다: Bryan G. Curtis, “The Zion-Daughter Oracles: Evidence on the Identity

주관적이라는 점과 가장 오래된 사본중의 하나인 4QXII<sup>a</sup>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노갈스키는 주전 6세기경에 편집된 신명기학파적 블록인 호세아-아모스-미가-스바냐가 존재하였고, 그 후에 학개와 스가랴 1-8장이 또 다른 블록을 형성했으며, 여기에 요엘, 오바댜, 나훔, 하박국, 말라기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두 블록에 삽입되었고, 이렇게 11권이 서로 연결된 커다란 구조체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본다.<sup>11)</sup> 노갈스키는 이것이 주전 4세기경에 이루어졌고, 여기에 스가랴 9-14장이 첨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요나서가 첨가되어 MT 소예언서가 완성되었다고 본다.<sup>12)</sup>

노갈스키는 소예언서 각 책들의 말미와 서두 본문의 상호 연결성을 관찰함으로써 소예언서의 통합성과 그 기원을 설명 전개한다. 노갈스키는 요엘서 1장 2-14절이 호세아 14장 5-9절의 내용뿐만 아니라 2장 3-23절과 4장 1-19절의 내용도 반영하는 편집으로 본다.<sup>13)</sup> 이와 같은 연결은 호세아 14장의 풍요의 약속이 요엘시대에 성취되지 않은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함임과 그들의 회개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sup>14)</sup> 요엘 1장 1-14절의 편집은 대략 주전 400-350년경일 것으로 추정한다.<sup>15)</sup> 이와 유사한 의미상의 변화를 요엘 4장<sup>16)</sup>과 아모스 1-2장 사이에서 볼 수

---

and Ideology of the Late Redactors of the Book of the Twelve,”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y / Marvin A. Sweeney, (Atlanta: SBL, 2000), 166-184.

- 11) 아론 샤프트는 신명기적(Deuteronomistic) 편집자들이라는 표현대신에 신명기적 사상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지만, 호세아서와 아모스가 최초의 연합물이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는 호세아-아모스-미가-스바냐서가 그 다음 단계에 형성된 블록이라는 차원에서 노갈스키와 견해를 같이한다. 요나서가 독립된 책으로서 맨 마지막에 첨가된 책이라는 점에 있어, 노갈스키나 존스와 견해를 같이한다; Aaron Scharf, “Reconstructing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Twelve Prophets: Problems and Models,”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34-48.
- 12) Barry Alan Jones, *윗글*(1995), 34-35; James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274-280, 270-273.
- 13) James Nogalski, *Literary Processes*, 13-22
- 14) 윗글, 16-17, 22
- 15) 윗글, 26
- 16) 여기에서 요엘서 장절은 히브리어 성경의 장절표기임.

있다는 것이다. 요엘 4장을 이 책에서 가장 나중에 편집된 것으로 보고, 페르샤 시대 후기로 본다.<sup>17)</sup> 그는 특히 요엘 4장 15절은 아모스 1장 2절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거꾸로 아모스 9장 13절은 요엘 4장 18절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본다.<sup>18)</sup> 노갈스키는 요엘 4장 1-21절이 적어도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본다. 우선 이것은 요엘서 전체의 결론역할을 하고, 둘째 아모스서의 서론역할을 하며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아모스 1-2장의 내용을 현실화하고 종말론화한다고 본다. 그리고 셋째, 이 장은 다른 본문들의 근거자료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암 9:13, 습 3:20).<sup>19)</sup> 요엘서가 아모스 1-2장에 나와 있는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MT의 오바다서는 아모스 7-9장, 특히 9장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존스는 노갈스키의 논지를 수용한다. 노갈스키는 오바다 1-5절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료인 예레미야 49장 9, 14-16절을 인용하며 동시에 12소예언서의 상황 특히 아모스 9장 1-15절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고 본다.<sup>20)</sup> 오바다서 1절에 나오는 표제어 ‘오바다의 환상(the vision of Obadiah)’이라는 표현도 아모스 9장의 환상에 맞추어 만들어진 표현으로 본다.<sup>21)</sup> 그러나 이 경우, 존스는 노갈스키와 달리, MT의 아모스 9장 12절은 70인역의 아모스 9장 12절에 보존되어 있는 히브리 본문의 변형된 형태라고 주장하며, ‘오바다의 환상’ (the vision of Obadiah)도 본래 이 책을 ‘나훔의 환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표현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모스 9장 2절과 오바다 4절과의 유사성도 이 양자의 차용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오바다 4절과 아모스 9장 2절사이의 유사성도 특별한

17) James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27, 각주 74), 57

18) 윗글, 46

19) 윗글, 48

20) 윗글, 60-64

21) 윗글, 61-69.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설득력있는 주장이다.<sup>22)</sup> 노갈스키는 오바다 8-9 절도 아모스 9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 특히 오바다 8절의 '바음 하 후' (그 날에는)는 종말론적 의미를 도입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sup>23)</sup> 요나서와 관련하여, 노갈스키는 크레일링(E. Kraeling), 슈미트(L. Schmidt), 바이마르(P. Weimar) 등의 논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요나서 2장 3-10절을 요나서 편집사중 최후층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맺는다.<sup>24)</sup> 노갈스키는 요나서 2장 3-10절의 삽입을 통하여 요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려 했다고 본다.<sup>25)</sup> 노갈스키는 요나서 2장 3-10절 본문에서 요나가 이스라엘을 나 타낸다고 보고, 이를 통해 편집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에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고 본다.<sup>26)</sup> 그리고 요나서의 내러티브 섹션에 요나서 2장 3-10절을 첨가한 사람이 요나서를 소예언서에 삽입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sup>27)</sup> 소예언서에 요나서를 삽입함을 통하여 나훔서에 나타나 있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이방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역사(役事)를 위한 가능성을 남겨줄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sup>28)</sup> 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와 관련된 노갈스키의 분석은, 존스가 비평한 것과 같은 약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전개이다.

존스는 그의 논문에서 소예언서 수집물중 가장 마지막에 첨가된 책이 요나서이며 그 이전에 요엘서와 오바다서가 첨가되었고, 그 이전에 이미

22) Barry Alan Jones, *윳글*, 232, foot-note 9).

23) James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68

24) 윳글, 261; Emil G. Kraeling, "The Evolution of the Story of Jonah," in *Hommages à André Dupont-Sommer*, (Paris: Librairie d'Amérique et d'Orient Adrien Maisonneuve, 1971), 305-318; Ludwig Schmidt, 'De Deo', *Studien zur Literarkritik und Theologie des Buches Jona, des Gesprächs zwischen Abraham und Yahwe in Gen 18:22ff. und von Hi 1*, (BZAW 143, Berlin: De Gruyter), 1976, 4-130; Peter Weimar, "Jonapsalm und Jonaerzählung," *BZ* 28(1984), 43-68.

25) James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264

26) 윳글, 265-269

27) 윳글, 265

28) 윳글, 270-271

9권의 책들(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구성된 수집물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른다.<sup>29)</sup> 존스는 9권의 기존 블록이전 단계에 관한 것은 근거가 다소 약한 가설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슈나이더의 견해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sup>30)</sup> 특히 세 개의 작은 블록(subgroupings)인 호세아-아모스-미가, 나훔-하박국-스바냐, 학개-스가랴-말라기가 상당한 문학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슈나이더의 관찰을 수용한다.<sup>31)</sup> 그리고 존스는 이 연대기적 삼단 발전과정을 프리드만의 전개를 바탕으로 강화한다.<sup>32)</sup> 존스는 여기에 요엘서, 오바다서, 요나서가 첨부되었다고 본다. 본래 전승되어 내려오던 9권의 수집물에, 연대기적 언급이 없는 이 세권의 책이 특히 주전 8세기 예언자들 사이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본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의 전승과정을 통하여 안정적 단계에 이르게 되어 내용자체를 바꾸기가 쉽지 않게 된 이 예언서들에 요엘서, 오바다서, 요나서를 삽입함으로써 기존의 내용을 재해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주전 8세기 예언을 포로후기의 상황에 재적용(recontextualization)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주전 5세기 중엽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sup>33)</sup> 그는 요나서가 4QXII<sup>a</sup>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며, 70인역의 히브리 저본(Vorlage)의 전반부 6권의 결론

29) Barry Alan Jones, *윗글*(1995), 222-228

30) *윗글*, 227-228

31) *윗글*, 227

32) Barry Alan Jones, *윗글*(1995), 228; 프리드만은 12권의 책이 제1이사야-예레미야/에스겔-제2,30이사야, 세 개의 연대기적 내용적 구조를 따라 3단계로 형성되었으며, 소예언서들도 이 형성단계와 병행을 이루며 구성되었다고 본다(호세아-아모스-미가[주전 8세기], 나훔-스바냐-하박국-오바다[주전 7세기 후반-6세기 초: 요엘과 요나], 학개-스가랴-말라기[주전 6세기 중엽-5세기 중엽]). 프리드만은 예레미야/에스겔 시대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보아 이 구조를 중앙집중구조로 이해하나 필자는 이것을 삼단양식구조로 본다: D. N. Freedman, *The Unity of the Hebrew Bibl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60-73; 필자도 이 3구분을 전체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필자는 기존의 호세아-아모스-미가 구조체에 오바다, 요엘, 요나가 첨가될 때, 새로운 형태의 삼단양식으로 재편되었다고 본다(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요나 / 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 / 학개-스가랴-말라기[실제 이 세 번째 블록은 변화가 없었다]); 참조 노갈스키의 견해, cf. Barry Alan Jones, *윗글*, 34-35, 193-194.

33) Barry Alan Jones, *윗글*(1995), 231



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34)</sup> 4QXXII<sup>a</sup>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것과 달리, 요나서가 70인역의 히브리 저본에서 요엘과 오바댜 다음 그리고 나훔 앞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나훔과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니느웨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다는 것이고, 요엘, 오바댜, 나훔에 나타난 이방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그 자리에 위치시킨 것일 수 있다.<sup>35)</sup>

이상의 논의들은 MT 소예언서의 형성과정에서 이미 세 개의 블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삼단양식적 특징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MT 소예언서에서 요나가 삽입되는 과정에서도 유지되었을 수 있다.

존스는 MT의 소예언서에서 요나서와 그 인접한 책들과의 관계는 요엘서와 오바댜서의 경우보다 그 설명이 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요나서는 오바댜서나 미가서와 직접적이고 명백한 언어적 연결점이 없다고 본다. 이 연결점을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한다. 볼프의 경우, 소예언서의 편집자가 예언자 오바댜를 열왕기상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과 동일시하여 열왕기하 14장의 요나보다 더 이전 인물로 보고 현재의 MT 위치에 들어가게 하였다고 본다.<sup>36)</sup> 슈나이더의 경우, 앗시리아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미가, 나훔, 하박국 섹션을 시작하도록 미가보다 연대기적으로 앞서는 요나(왕하 14:25)를 미가 앞에 둔 것이라고 본다.<sup>37)</sup> 쿠퍼(A. Cooper)의 경우, MT의 소예언서에서의 요나의 배열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다양한 언급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본다(욥 2:13-14; 욥

34) 윗글, 229

35) 윗글, 228

36) 윗글, 232; H. W. Wolff, *Obadiah and Jona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91), 75; Nogalski는 이 볼프의 견해를 따른다, James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270

37) James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232; D. A. Schneider, 윗글, 113; Herbert Marks, "The Twelve Prophets," in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ed. R. Alter / F. Kermo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208, 207-233

4:2; 미 7:18-20).<sup>38)</sup> 앞에 언급한 대로, 존스는 그의 논문에서 MT에서 요나서가 오바다서 다음에 나오게 된 것은 70인역의 히브리 저본의 순서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요나서가 오바다서 뒤에 나오는 것은 매우 우연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요나서가 오바다서 뒤에 나오게 된 것은 오바다서가 요엘과 나훔 사이에 나오며, 요나서는 이 둘과 문학적으로 상당히 가깝다는 이유에서라고 본다. 그리고 요나서와 그 주변 책들과의 특별한 또 다른 연결점은 요나서와 미가서 사이에 있다고 보며, 예레미야 26장에 언급되어 있는 예언자 미가의 역사적 상황에 관한 구전 전통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한다. 예레미야 26장 18-19절과 요나서와의 비교는 미가와 요나가 재앙의 말씀을 가지고(미 3:12 / 온 3:4), 한 민족에게 도전하여(유다 / 니느웨), 왕의 응답을 요구했고(히스기야 / 니느웨의 왕), 민족의 회개를 가져왔음(렘 26:19 / 온 3:10)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 양자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 요나서가 미가서 앞에 올 수 있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본 것이다.<sup>39)</sup>

존스의 주장대로, 필자는 요나서가 4QXII<sup>a</sup>의 말미에서 결론역할을 하였고, 70인역의 히브리어 저본에서 전반부의 결어역할을 한 것도 개연성이 높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MT 소예언서에서 특히 MT 소예언서의 삼단양식적 구조체의 첫 번째 블록의 결론부기능과 뒤의 두 블록을 문학적 신학적으로 예비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본다.

필자는 MT 소예언서의 편집자가 요나서를 미가서 앞에 위치시킨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문학구조에 대한 그의 이해에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슈나이더의 견해를 따라, 그 당시 이 편집자가 신명기 역사서의 내용 곧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나서를 미가서 앞에 위치

38) A. Cooper, "In Praise of Divine Caprice: The Significance of the Book of Jonah," in *Among the Prophets*, ed. P. R. Davies, (JSOTSup 141, Sheffield: JSOT Press, 1993), 159-163; cf. 유사한 견해, D. A. Schneider, *윳글*, 99

39) Barry Alan Jones, *윳글*(1995), 233

시킨 것이며, 앗시리아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미가, 나훔, 하박국 섹션을 시작하도록 요나서를 미가 앞에 둔 것이라고 본다.<sup>40)</sup>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과는 매우 다른 요나서의 문학적 차별성과 독립성(다른 예언서들과 다른 내러티브 장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자 자신의 부정적 반응)은 이것이 어떤 단락의 중간에 들어가기 보다는 서두나 말미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sup>41)</sup> 그리고 표제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더라도, 노갈스키는 호세아-아모스-미가-스바냐를 신명기학과의 편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 이해하지만,<sup>42)</sup> 미가와 스바냐는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호세아와 아모스와는 달리 ‘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상이점이 있다.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의 서두표제어에는 이스라엘이 언급되며 병행을 이루고 있고(호세아 1:1 // 아모스 1:1 [X // X’]),<sup>43)</sup> 요나는 명백히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두 표제어에 언급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인물[왕하 14:25]).

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댜-요나의 상호 연결성을 지지하는 슈나이더, 노갈스키, 존스 등의 논의를 전제로 이 블록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호세아 ---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앗시리아)

B. 요엘 --- 이방민족들에 대한 징벌(에돔)

C. 아모스 --- 언약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회복의 약속(암

40) D. A. Schneider, *윗글*, 113; Barry Alan Jones, *윗글*(1995), 232.

41) Aaron Schart, *윗글*, 42, 45

42) James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278-279

43) X. 호세아 1:1,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Hosea son of Beeri, in the days of Kings Uzziah, Jotham, Ahaz, and Hezekiah of Judah, and **in the days of King Jeroboam son of Joash of Israel**.

X’. 아모스 1:1, **The words of Amos**, who was among the shepherds of Tekoa, which he saw concerning Israel in the days of King Uzziah of Judah and **in the days of King Jeroboam son of Joash of Israel**, two years before the earthquake.

9:7[보편주의]; 9:12[에돔]; 9:14-15[이스라엘의 구원]

B'. 오바다 --- 이방민족들에 대한 징벌(에돔)

A'. 요나 --- 언약과 이스라엘의 구원(운문: 온 2:3-10); 하나님의 사랑(산문: 앓 시리아)

미가와 스바냐의 서두 표제어는 호세아와 아모스의 표제어와 유사하나 '유다'에 초점을 맞추어 병행을 이루고 있다(미가 1:1 // 스바냐 1:1 [A // A']).<sup>44)</sup> 그리고 이 외곽틀(A//A')의 중앙에 있는 나훔과 하박국의 표제어도 서로 병행을 이룬다(나훔 1:1 // 하박국 1:1 [B // B']).<sup>45)</sup> 미가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유다에 대한 관심과 앓시리아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그 다음 책들인 나훔 하박국 스바냐와 연결되어 독립된 블록을 형성한다.

MT 소예언서의 두 번째 블록(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미가서 1:1 (이스라엘 왕의 이름; 아훼의 말씀;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는 긴 표제어[언약신학; 이스라엘의 죄와 구원; 만민, 4:1-5, 고임 라빔 גוֹיִם רְבִיִּים])

B. 나훔서 1:1 (이것은, 묵시 [앓시리아])

B'. 하박국 1:1 (이것은, 묵시 [바벨로니아])

A'. 스바냐서 1:1 (이스라엘 왕의 이름; 아훼의 말씀; 역사적 상황을 담고 있는 긴 표제어[언약신학; 이스라엘의 죄와 구원; 만민, 2:11, 콜 이에 학교임 כָּל אֵי הַגּוֹיִם חָקוּ אֵי])

44) A. 미가서 1:1,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Micah of Moresheth in the days of Kings Jotham, Ahaz, and Hezekiah of Judah, which he saw concerning Samaria and Jerusalem

A'. 스바냐서 1:1, **The word of the LORD** that came to Zephaniah son of Cushi son of Gedaliah son of Amariah son of Hezekiah, in the days of King Josiah son of Amon of Judah

45) B. 나훔 1:1, **An oracle** concerning Nineveh, The book of the vision of Nahum of Elkosh

B'. 하박국 1:1, **The oracle** that the prophet Habakkuk saw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블록은 포로기 이후의 말씀들로서 우선 학개와 스가라서가 명백한 병행과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며 문학적 차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들이다. 이 책들의 서두는 앞의 책들과 형태와 내용면에서 구별되며 다음과 같은 병행을 보여 준다 (X/X').

X. 학개 1:1, In the second year of King Darius, in the sixth month,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by the prophet Haggai to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and t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X'. 스가라 1:1, In the eighth month,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 prophet Zechariah son of Berechiah son of Iddo, saying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이 블록에 신학적으로 시대적으로 가까운 말라기가 더 첨가되어 세 번째 블록을 형성하게 되었다.<sup>46)</sup> 학개, 스가라, 말라기는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책들로서 서로 병행적 관계를 형성하며(성전과 제사장, 의문문의 집중적 사용[특히 학개와 말라기], 종말론적 소망), 스가라 9-14장은 중앙에서 이 블록 전체에서 강조되는 종말론적 소망을 강화하며 블록의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다.<sup>47)</sup>

46) Barry Alan Jones, *윳글*(1995), 54-56; R. W. Pierce, "A Thematic Development of the Haggai-Zechariah-Malachi Corpus," *JETS* 27(1984), 277-289; 위에 언급된 논의 참조(슈나이더, 프리드만, 커티스, 샤프, 노갈스키 등).

47) 노갈스키는, 속 9-14장과 요나서가 학개-스가라(1-8장)-말라기 블록이 형성된 이후에 그들의 고유한 신학적 문학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첨가되었다고 본다; cf. James D.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274-280, 270-273. 그러나 슈나이더는 속 9-14장(Dt-Zech)을 말라기와 동시대 곧 주전 5세기 전반기의 저작으로 보며, 존스도 이에 동의한다(Dale A. Schneider, *윳글*, 143-145); cf. Barry Alan Jones, *윳글*, 25; 이와 같은 견해, A. E. Hill, "Dating Second

S. 학개 (성전과 제사장, 의문문의 집중적 사용)

T. 스가랴 (성전과 제사장, 종말론적 소망의 강화[속 9-14])

S'. 말라기 (성전과 제사장, 의문문의 집중적 사용)

MT 소예언서는 이와같이 세 개의 커다란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단양식적 구조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체 안에서 각각의 책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고유한 문학적 신학적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내용상의 삼단양식적 구조는 슈나이더, 프리드만, 존스 등의 견해들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내용적으로 상호 구별되는 세 개의 블록(호세아-아모스-미가; 나훔-하박국-스바냐; 학개-스가랴-말라기)에 요엘 오바다 요나가 삽입되면서 구조적 변화가 생겼으나, 삼단양식적 특징을 유지하며, 이 새로운 구조체(MT 소예언서) 안에서 요나서가 첫 번째 소 블록의 결론부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본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블록: 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요나

두 번째 블록: 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

세 번째 블록: 학개-스가랴-말라기

MT 소예언서는 호세아서와 말라기서가 병행을 이루며(호세아서 // 말라기서, *inclusio*)<sup>48)</sup> 크게 세 개의 블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

Zechariah: A Linguistic Reexamination," *HAR* 6 (1982), 105-34; C. L. Meyers, E. M. Meyers, *Zechariah 9-14*, (AB Vol. 25B, Garden City: Doubleday, 1993), 18-28.

48) 이 삼단양식적 구조체의 서두에 해당하는 호세아서와 말라기와의 병행적 관계는 이미 John D. Watts에 의해 잘 전개된 바가 있다; cf. John D. Watts, "A Frame for the Book of the Twelve: Hosea 1-3 and Malachi",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SBL Symposium series no. 15, Atlanta: SBL, 2000), 209-217.

통일체를 이루고 있는 삼단양식을 그 기본 틀로 하고 있다.

MT 소예언서의 첫 번째 블록에서, 4QXII<sup>a</sup>와 70인역 히브리어 저본에서 요나서가 가졌던 결론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여, 요나서가 결론의 역할을 하며 첫 블록을 마감하고 그 다음 블록, 특히 미가서를 준비한다. 필자는 이제 이 삼단양식 구조체 특히 이 구조체의 첫 번째 블록 안에서 수행되고 있는 요나서의 신학적 문학적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 3. 삼단양식적 구조체 MT 소예언서의 첫 번째 블록(호세아 [A]-요엘[B]-아모스[C]-오바댜[B']-요나[A']) 안에서의 요나서의 신학적 문학적 역할과 기능

#### 1) 호세아서와 요나서와의 관계

호세아서와 요나서는 이 첫 번째 블록에서 신학적 주제면에서 병행관계에 있으며, 요나서는 이 블록에서 호세아와 내용적 수미상응관계(inclusio)를 이루며 이 블록의 결어 역할을 하며 다음블록에서 강조되는 세상의 평화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종말론적 선포를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호세아서는 언약신학과 출애굽신학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예언서이다. 호세아서가 아모스서 앞에 위치하게 된 이유도 호세아서가 서두에서 언약신학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고 본다. 출애굽 전통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호세아서의 가장 기본적 특징이다(호 2:15; 8:11-13; 9:3; 11:1-5; 12:9; 13:4-8).<sup>49)</sup> 그리고 호세아서의 가장 특별한 면모이며, 호세아 자신의 부부관계로 묘사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관계가 호세아서 서두(1-3장)에 큰 비중으로 다루어 졌다는 점이 이를 대변한다. 그리고 그 어느 소예언서보다도 많은 본문들에서 언약을 나타

---

49) James L. Mays, *Hosea* (OTL, London: SCM Press, 1969), 7-8; Francis I. Andersen/ David Noel Freedman, *Hosea* (AB, New York: Doubleday, 1980), 47

내는 표현들이 언급된다(호 1:2; 1:9-2:1; 2:8; 2:19-20; 4:10; 5:7; 6:7; 8:1-3, 11-13; 10:10, 12; 12:5-6). 그리고 언약과 관련된 이스라엘(언약의 상대자)의 의무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의무를 나타내는 우상숭배금지에 관한 언급이 매우 큰 비중으로 나타난다(호 2:8-13; 3:11-19; 4:17; 5:4-7; 8:1-6; 10:10; 13:1-2). 그리고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호 8:12).

요나서는 산문부분과 운문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산문부분(욘 1:1-2:2; 3:1-4:11)에서는 요나의 편협성과 이에 대조되는 이방민들의 신앙(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강조하고 있으며, 운문부분(욘 2: 3-10)은 출애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시온과 성전의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과 우상숭배의 금지(욘 2:8)을 강조하고 있다. 요나서의 초기의 기본 틀은 산문부분이었으며, 요나서 2장 3-10절은 일반적으로 후기첨가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감사시에 해당된다고 본다.<sup>50)</sup> 물론 감사시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특히 출애굽기 15장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본문으로서 시온신학과 함께 출애굽신학도 반영하며 언약과 선택의 신학을 반영하는 본문으로 본다.<sup>51)</sup>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백성으로서의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52)</sup> 이러한 언약적 관계는 예언서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이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임도 나타낸다. 세상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시온과 성전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전제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용적 차원에서, 요나서 2장 3-10절의 기능은 요나서의 내러티브를 통

50) Artur Weiser/ Karl Elliger, 「소예언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원제는 *Das Buch der zwölf Kleinen Propheten*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5), 39-48

51) 박철우,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321-337

52) 요나서에서 요나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aul House, *Unity of the Twelve* (Sheffield: Almond Press, 1990), 83, 137; Edwin Good, *Irony in the Old Testament*, 2<sup>nd</sup> ed. (Sheffield: Almond Press, 1981), 53-54; James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265-269



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이방민족들에 대한 무원칙적 구원이라는 잘못된 이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하나님은 세상만민(‘니느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며, 만민의 평화와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출애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언약의 하나님, 창조적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시온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관과 구원관을 요나서라는 특별한 이야기 중심의 예언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MT 소예언서의 첫 번째 블록(A-B-C-B’-A’)의 결론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관과 구원관의 선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블록과 세 번째 블록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호세아서에서 시온과 성전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다. 당연히 이 책은 북왕국에 초점이 맞추어진 예언이기에 그렇다. 그러나 유다에 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다(호 1:7, 11; 4:15; 6:11; 8:14; 11:12; 12:2). 그 대신 위기가운데 있는 그의 언약의 파트너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큰 비중으로 나오는 책이다. 우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약속이 서두부분(호 2:14-23; 1:10-2:1)에서부터 큰 비중으로 나오다가 걸어부분(호 11:1-9; 14:4-8)에 다시 나타난다.<sup>53)</sup> 이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핵심적 면모이다(욘 2:9). 그리고 이러한 구원역사의 전제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며 이것이 호세아서에 큰 비중으로 나오며(호 1:7; 2:19; 2:23; 14:3), 다시 문자적으로 요나서에 반복된다(욘 2:8; 4:2). 그리고 호세아서에 앗시리아에 대한 언급과 관심이 큰 비중으로 나온다(호 5:13; 7:11; 8:9; 9:3; 11:5, 11; 12:1; 14:3). 물론 이것은 호세아의 말씀이 앗시리아의 위협적 상황 속에서 행해진 것이긴 하나, 요나서에 나오는 앗시리아에 대한 관심(욘 [니느웨] 1:2; 3:2; 3:3[2회]; 3:4, 5, 6, 7; 4:11)은 이 블록의 대칭점

53) 참조, James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58-65.

에서 병행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 블록의 결론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A//A', inclusio). 필자는 MT 소예언서의 최종 편집자가 요나서의 이런 결론적 역할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결론부(호 14:9)에서 지혜에 대한 강조, 즉 하나님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호 13:4)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호 7:10; 13:6)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순종하며(호 8:1, 12; 4:6; 9:17),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호 8:14)를 잊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호 3:5)이 참다운 지혜임을 강조하는 호세아서의 결론은, 요나서에 다시 나온다.<sup>54)</sup> 요나서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욘 1: 10, 16; 3:5-9)과 그들의 겸손(욘 3:5-10)에 초점을 맞추며 그들의 지혜적 면모를 부각시킨다.<sup>55)</sup> 이러한 내용들은 호세아서와 요나서 간의 수미상응적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 경외의 강조와 교만의 문제는 MT 소예언서의 말미인 말라기에서 다시 강조되는 내용이다([경외] 말 1:6, 14; 2:5; 3:5, 16; 4:2; [교만] 호 4:1; 3:15). 이처럼 이 주제는 첫째 블록의 말미와 MT 소예언서 전체의 말미에서 강조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sup>56)</sup>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강조된 회개의 문제도 요나서에서 다시 부각된다(호 2:7; 3:5; 5:4, 15; 6:1; 7:10, 16; 12:6; 14:1, 2 // 욘 3:8, 10).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죄된 행동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데레크’

54) 호세아서와 요나서의 신학적 상관관계에 관해 Marvin A. Sweeney는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Jonah expresses the principle - applied to Israel in Hosea - that the nations, exemplified by Assyria, might also repent and receive mercy from YHWH"; Marvin A. Sweeney, "Sequence and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the Twelve,"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63, 49-64.

55) 하나님 경외의 지혜적 면모(잠언 읊기 전도서); Bruce K. Waltke, *The Book of Proverbs 1-15* (Grand Rapids: Eerdmans, 2004), 100-101, 180; R. N. Whybray, *Proverbs* (Grand Rapids: Eerdmans, 1994), 36

56) 특히 경외의 주제는 12 소예언서 전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한 통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호 10:3; 율 2:11, 31; 암 3:8; 욘 1:16[cf. 5, 10]; 미 7:17; 합 3:2, 7; 슥 2:11; 슥 9:5; 말 1:4; 4:5; 2:5; 3:5).

(%or,D,, 호 2:6; 9:8; 10:13; 12:2)도 짧은 책이지만 요나서에도 2회 반복되고 있다(욘 3:8, 10)는 점도 이 양자의 내용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나서에서 사람들의 폭력의 죄악을 나타내는 표현인 ‘테레크 라이’와 병행을 이루어 나오는 ‘하마스’가 호세아서에는 나오지 않으나, 요나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악의 내용은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요나서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찰들은 요나서와 호세아서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적어도 요나서가 첫 번째 블록(A-B-C-B’-A’)의 결론부로서 적합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MT 소예언서의 최종편집과정에서 이 블록의 결론부로서 고려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2) 아모스서와 요나서와의 관계

출애굽신학과 언약신학과 시온신학의 결합은 아모스서에서 그 균형을 잘 나타낸다. 아모스서는 이 중앙집중구조(A-B-C-B’-A’)의 중심(C)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용한다. 아모스서는 앗시리아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이 첫 번째 블록의 중심 본문이다. 여기에서는 이 중앙집중구조체의 B(요엘)와 B’ (오바댜)에서 초점이 되어 나오는 예돔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이 언급된다. 지명의 언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관찰 할 수 있다. 아모스가 아직 앗시리아의 위협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모스서에 앗시리아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예언서 가운데 아모스서는 이웃민족과 세계에 관한 가장 많은 언급과 관심을 나타내는 예언서이다(특히 암 1-2장). 암 1-2장에서 이방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언급되지만 동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의 말씀이 선포된다. 동시에 아모스서는 요나서의 산문에서 표출된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역사를 잘 반영하는 선포하기도하다(암 9:7). 이것은 이 블록의 결론부

인 요나서의 중심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지명과 관련된 아모스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아모스서의 서두와 말미에서 ‘에돔’이 집중적으로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에돔은 이 첫 번째 블록이외에는 MT 소예언서의 결론부인 말라기에만 한번 언급된다(말 1:4). 그리고 이 첫 번째 블록의 B-C-B’ (요엘-아모스-오바다)에만 언급되는 나라이다(B[요 3:19]; B’ [요 1:1, 8]), 그리고 아모스서(C)에서 집중적으로 수미상응의 형태로 나온다(암 1:6, 9, 11; 2:1 // 암 9:12). 이것은 우연일 수 없다. 노갈스키는 아모스 서두와 요엘서 말미, 그리고 아모스서 말미와 오바다서와의 상관관계를 잘 관찰하고 있다.<sup>57)</sup>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모스서는 이 첫 번째 구조체의 중심에서 전후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예언서들(요엘서와 오바다서)을 팔을 벌리고 손을 잡고 있는 형상으로 연결되어있다(B ↔ C ↔ B’).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세상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선포하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한마디로 선포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잡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암 9:7). 아모스는 출애굽신학을 잘 보여 준다(암 2:9-10; 3:1-2). 그리고 언약신학의 요소를 명백히 보여준다(암 2:6-8; 7:8, cf. 출 22:21-27). 그리고 율법과 우상숭배의 문제를 보여주며(암 2:4-5),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적 징벌의 말씀이 내용적 중심을 이룬다(암 2:4-16; 3:1-2, 9-15; 4:1-11; 5:1-27; 6:1-14, etc).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창조적 역사의 능력이 선포되며(암 4:13; 5:8; 9:5-6; 1:2), 그 권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한 죄로 인해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에 의해 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선포된다. 아모스서에는 적어도 포로 후기 아모스서가 마지막 편집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이와 같은 출애굽 언약

57) James Nogalski, *Literary Precursors*, 37-46, 69-74; Paul House, *윗글*, 81-82

전통뿐만 아니라 유다와 시온의 선택을 강조하는 다윗-시온신학도 융합되어 있다(암 3:2; 8:14; 9:11-15). 특별히 세상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지는 이 중앙집중구조체(A-B-C-B'-A')의 중심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암 9:7). 이러한 포괄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 아모스서이며, 이것은 요나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나서는 실제 이러한 내용들을 결론부에서 산문의 형태로 더 확장하고 있는 모양을 취하게 되었다. 이것이 요나서를 이 첫 번째 블록의 결론부에 위치시킨 이유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아모스서는 이 블록의 중심에서 요엘서의 내용과 오바다서의 내용과 연결하여(B-C-B')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민족들 특히 에돔의 징벌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이 블록의 중심에서 아모스서가 다루고 있는 다윗-시온 신학적 요소와 세상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충함과 동시에 요나서를 예비하게 되었다.

### 3) 요엘서-오바다서(B-B')와 요나서와의 관계

요엘서의 경우, 노갈스키의 주장대로 요엘서 1장에서 전개되어 있는 농사이미지와 호세아 14장 8절의 이미지가 서로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필자는 좀더 세부적인 유비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의 전개에 더 큰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요엘서 4장과 아모스 1-2장의 내용이 이방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차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찰은 매우 적절하다. 그는 요엘서 4장의 편집자가 이 부분을 여기에 삽입함으로써 아모스 1-2장의 내용을 종말론화한다고 본다.<sup>58)</sup> 필자는 이와 함께 관찰되어야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블록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요엘서(B)의 끝부분에 언급되어있는 에돔은 아모스서의 서두와 연결될 뿐만

58) James D. Nogalski, *Redactional Processes*, 276

아니라, 아모스서(C)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오바다서(B')의 관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요소가 요엘서(B)와 오바다서(B')를 이 블록에 삽입할 때 고려된 사항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B // B'). 존스는 요나서가 오바다서 뒤에 나오게 된 것은 오바다서가 요엘과 나훔 사이에 나오며, 요나서는 이 둘과 문학적으로 상당히 가깝다는 이유에서라고 본다.<sup>59)</sup> 그리고 요나서와 그 주변 책들과의 유일한 또 다른 연결점은 요나서와 미가서 사이에 있다고 본다.

필자는 요나서가 오바다서 뒤에 나온 이유를 이 첫 번째 블록의 구조적 틀(중앙집중구조: A-B-C-B' -A')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요엘서(B)의 말미와 아모스서(C)의 서두에서 에돔을 중심으로 연결된 아모스는 그 말미에서 에돔을 언급함으로써 오바다서(B')를 준비한다. 오바다서의 민족적 초점은 바로 에돔이었다. 특히 요엘서의 신학적 초점은 시온 전통이다(을 1:13-14; 2:1-2, 15-17, 23; 3:5[개역 2:32]; 4:16-21[개역 3:16-21]).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와 에돔의 패망 그리고 시온의 소망은 오바다서(B')에서 다시 전개되며 요엘서(B)와 병행을 이룬다. 이 경우 특별히 에돔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의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호세아서(A) 말미(호 14:9)에 선포된 지혜의 말씀과 연결된다. 우선 오바다서(B')는 에돔의 무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들의 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있었다. 그들의 무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는 무지였다. 그 무지로 인하여 그들은 징벌을 받을 것임이 선포된다.<sup>60)</sup> 그런데 이제 요나서(A')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만민의 구원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심을 선포해야 했고, 오바다서(B') 다음에 이 포괄적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했다. 그런데 오바다서에서 이방민 에돔의 무지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였다.

59) Barry Alan Jones, *윳글*(1995), 232-233

60) 박철우, 「아모스/오바다」, 《대한 기독교사회 백주년 기념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사회, 2001), 297-354

하나님의 구원적 포용성은 오바다서(B')에 충분히 표출되지 않은 내용이며, 요나서(A')는 이러한 사실을 선포하기에 적합한 본문이며 실제 요나서(A')는 오바다서(B')의 이 면모를 보충함으로써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신관에 대한 내용적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요나서에서 지혜를 가진 이방민족 곧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겸손한 이방민족, 그래서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가 강조되기 때문이다.<sup>61)</sup> 의미상의 범주가 훨씬 에돔보다 넓은 앗시리아에 초점을 맞추는 요나서(A')가 이방민족들도 구원하시는 공홍의 하나님을 결론부에서 선포하기에 더욱 적합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앗시리아는 서론적 예언서인 호세아서(A)에서 다루어졌던 나라이고 이제 결론부(요나서, A')에서 그 나라도 회개할 수 있고 그 나라도 구원될 수 있음을 더 넓은 의미상의 외연을 가지고 선포함으로써, 에돔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선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을 선포하는 미가서(미 4:1-5, 두 번째 블록)를 예비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요나서(A')의 삽입은 MT 소예언서의 신학을 요나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적절한 선택이며 배치였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필자는 본 논문에서 소예언서의 구성과 통일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

---

61) 이러한 대조적 관계는 Rolf Rentorff에 의해서도 잘 전개되었다; Rolf Rentorff, "How to Read the Book of the Twelve as a Theological Unity,"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80-83; cf. James D. Nogalski, "The Day(s) of YHWH in the Book of the Twelve,"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eds.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t,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192-213; 박철우, 「요나/미가」, (대한 기독교서회 백주년 기념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이 지혜적 요소 또한 요나서와 호세아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의 중요한 성과인 존스(Barry Alan Jones)의 논문을 그 출발점으로 하였다. 특히 요나서는 4QXII<sup>a</sup> 12소예언서의 12번째 나오며 결론부의 기능을 한다는 이해와 요나서가 70인역 소예언서의 전반부 6권의 6번째 나오므로써 전반부의 결론부 기능을 했을 수 있다는 이해를 수용하며 이를 발전시키려 시도하였다. 한편 이를 통하여 필자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던 그의 견해인, MT 소예언서에서 요나서가 오바다서와 미가서 사이에 위치하게 된 것은 매우 우연적(“almost accidentally”)이라는 그의 견해를 극복하려 시도하였다. 필자는 존스의 전자의 이해를 전제로, 요나서의 결론적 기능이 4QXII<sup>a</sup> 소예언서와 70인역 소예언서에서 뿐만 아니라, MT 12소예언서에서도 유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MT 소예언서가 세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삼단양식적 구조체이며 요나서는 이 구조체의 첫 번째 블록(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요나)에서 신학적 문학적 결론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구조체의 두 번째 블록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임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요나서의 삽입이, 역사적으로 미가보다는 앞선 시대의 인물이라는 이유이외에도(왕하 14:25), 매우 치밀한 신학적 문학적 고려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MT 소예언서에서의 요나서의 위치가 존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놓여진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 고려된 치밀한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MT 소예언서의 통일성과 구성의 특징과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구조적 이해와 이 구조체 안에서 요나서가 갖는 결론부적 역할과 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 5. 참고목록

- 박철우,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4)  
 \_\_\_\_\_, 「아모스/오바다」, (대한 기독교서회 백주년 기념주석, 서울: 대한



- 기독교서회, 2001)
- \_\_\_\_\_, 「요나/미가」, (대한 기독교서회 백주년 기념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Andersen, Francis I. / Freedman, David Noel, *Hosea* (AB, New York: Doubleday, 1980).
- Cross, Jr., F. M.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and Modern Biblical Studies* (Westport: Greenwood Press, 1976).
- Cooper, A. "In Praise of Divine Caprice: The Significance of the Book of Jonah," in *Among the Prophets*, ed. P. R. Davies, (JSOTSup 141, Sheffield: JSOT Press, 1993), 159-163.
- Curtis, Bryan G. "The Zion-Daughter Oracles: Evidence on the Identity and Ideology of the Late Redactors of the Book of the Twelve,"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y / Marvin A. Sweeney, (SBL Symposium series no. 15, Atlanta: SBL, 2000), 166-184.
- Freedman, D. N., "Headings in the Books of the Eighth Century prophets," *AUSS* 25 (1987), 9-26
- \_\_\_\_\_, *The Unity of the Hebrew Bibl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 Good, E. H. *Irony in the Old Testament*, 2<sup>nd</sup> ed. (Sheffield: Almond Press, 1981).
- Hill, A. E. "Dating Second Zechariah: A Linguistic Reexamination," *HAR* 6 (1982), 105-34.
- House, Paul, *Unity of the Twelve* (Sheffield: Almond Press, 1990).
- Jones, Barry Alan,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the Twelve* (SBL Dissertation Series 149, Atlanta: SBL, 1995).
- \_\_\_\_\_, "The Book of the Twelve as a Witness to Ancient Biblical

- Interpretation,”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SBL Symposium series no. 15, Atlanta: SBL, 2000), 65-74.
- Kraeling, Emil G. “The Evolution of the Story of Jonah,” In *Hommages à André Dupont-Sommer* (Paris: Librairie d’Amérique et d’Orient Adrien Maisonneuve, 1971), 305-318.
- Marks, Herbert, “The Twelve Prophets,” in *The Literary Guide to the Bible*, ed. R. Alter and F. Kermo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207-233.
- Mays, James L. *Hosea* (OTL, London: SCM Press, 1969).
- Meyers, C. L. / Meyers, E. M. *Zechariah 9-14* (AB, Garden City: Doubleday, 1993).
- Nogalski, James D. *Literary Precursor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Band 217, Walter de Gruyter: Berlin, 1993).
- \_\_\_\_\_, *Redactional Processes in the Book of the Twelve* (BZAW 218, Berlin: Walter de Gruyter, 1993).
- \_\_\_\_\_, “The Day(s) of YHWH in the Book of the Twelve,” *Thematic Threads in the Book of the Twelve*, eds. Paul L. Redditt and Aaron Scharf (BZAW 325, Berlin: Walter de Gruyter, 2003), 192-213.
- Rolf Renterff, “How to Read the Book of the Twelve as a Theological Unity,”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SBL Symposium series no. 15, Atlanta: SBL, 2000), 75-87.
- Scharf, Aaron, “Reconstructing the Redaction History of the Twelve Prophets: Problems and Models,”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SBL Symposium series no. 15, Atlanta: SBL, 2000), 34-48.

- Schmidt, Ludwig 'De Deo'. *Studien zur Literarkritik und Theologie des Buches Jona, des Gesprächs zwischen Abraham und Yahwe in Gen 18:22ff. und von Hi 1*. (BZAW 143. Berlin: DeGruyter, 1976), 4-130.
- Schneider, Dale A. "The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 (Ph. D.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9).
- Sweeney, Marvin A. "Sequence and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the Twelve,"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SBL Symposium series no. 15, Atlanta: SBL, 2000), 49-64.
- Ulrich, Eugene and Others, *Qumran Cave 4*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XV, Oxford: Clarendon, 1997).
- Watts, John D. "A Frame for the Book of the Twelve: Hosea 1-3 and Malachi," *Reading and Hearing the book of the Twelve*, eds. James D. Nogalski / Marvin A. Sweeney, (SBL Symposium series no. 15, Atlanta: SBL, 2000), 209-217.
- Weimar, Peter, "Jonapsalm und Jonaerzählung." *BZ* 28(1984), 43-68.
- Weiser, Artur / Elliger, Karl, 「소예언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원제는 *Das Buch der zwölf Kleinen Propheten* (ATD, Göttingen: Vandenhock & Ruprecht, 1975).
- Waltke, Bruce K. *The Book of Proverbs 1-15* (Grand Rapids: Eerdmans, 2004).
- Whybray, R. N. *Proverbs* (Grand rapids: Eerdmans, 1994).
- Wolff, H. W., *Obadiah and Jonah*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Press, 1991).

검색어

MT 소예언서

요나서

삼단양식구조

구성

통일성

## A Study on the Triadic Structure of the MT of the Book of the Twelve and the Literary and Theological Function of the Book of Jonah within it

**Cheol-Woo Park, Ph.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Korea Nazarene University

I have made Barry Alan Jones' recent important thesis as my point of departure for the issue of the composition and unity of the Book of the Twelve.

I am at one with him in his conclusion that the Book of Jonah functions as the concluding book not only in 4QXII<sup>a</sup> the Book of the Twelve but also in the first half of that of Septuagint. But I disagree with his contention that the placement of the Book of Jonah within the MT is almost accidental. I tried to correct it on the basis of my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particularity of the MT of the Book of the Twelve and demonstrate the opposite view that it functions as a concluding book in

www.kci.go.kr

the structure of the MT of the Book of the Twelve.

I tried to show that the corpus of the MT of the Book of the Twelve has the triadic structure of three blocks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developing theological contents, and that the book of Jonah functions as the concluding book in the first block(Hosea-Joel-Amos-Obadiah-Jonah) of the triadic corpus, preparing the next two blocks beginning with the book of Micah. These observations show, differing from Barry Alan Jones' view, that the insertion of the Book of Jonah, in addition to the historical reason that Jonah was a person earlier than Micah(2Kgs 14:25), was made on the basis of the very careful theological and literary consideration.

Therefore, this structural understanding should be borne in mind in dealing with the composition, unity and theology of the MT of the Book of the Twelve.

## Keywords

MT the Book of the Twelve

Jonah

Triadic structure

Composition

Unity

- 투고일: 2013년 1월 01일
- 심사일: 2013년 1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08일

[www.kci.go.kr](http://www.kci.go.kr)